

메가리트 문제

Das Megalithproblem

하이네-겔더른¹⁾

R.Heine-Geidern

譯 李 光 奎

〈서울사대 조교수〉

- ◇…본논문(本論文)은 1958年 9月 8일부터 9月 12일까지 오지리(塢地利)에서 인류학(人類學), 민족학(民族學), 민속학(民俗學),
- ◇…고고학계분야(考古學諸分野)의 학자(學者)가 모여 Wenner-gren Foundation의 후원(後援)으로 열린 Symposium
- ◇…에서 발표(發表)된 논문중(論文中)의 하나이다. 특히 메가리트 문제(問題)는 그의 많은 업적중(業績中) 평생(平生)을 바
- ◇…쳐 연구(研究)한 것으로 그를 추모(追慕)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소개(紹介)한다.

금반(今般) 심포지움의 테마로 메가리트 문제(問題)를 선택(選擇)한 것은 메가리트텐툼(Megalithentum)²⁾이 문화사(文化史)의 한 복합체(複合體)로서 중대(重大)한 의미(意味)를 가질뿐더러 더욱이 고고학(考古學)과 민족학(民族學) (또는 유럽의 민속학(民俗學)) 등이 긴밀(緊密)히 공동작업(共同作業)을 하므로써 그 의미(意味)와 역사(歷史)를 명백(明白)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사(史前史)(Vorgeschichte)나 선사시대(先史時代)(Fruhgeschichte)의 메가리트기념물(記念物)(Megalithdenkmäler)의 의미(意味)는 고고학자(考古學者)에게 중요(重要)하나 고고학(考古學)이 해결(解決) 못하는 많은 문제(問題)가 있음으로 그들만으로는 연구(研究)가 어렵다. 문제(問題)란 메가리트무덤(Megalithgräber) 같은 것, 더욱이 멘힐(Menhir), 돌레들(Steinkreise)³⁾등 장제(葬制)와 관계(關係)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곳에 예(例)컨데 Carnac이 지적하는 돌레션돌(Stonehenge) 또는 놓인들(Steinsetzung)⁴⁾등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意味)를 환기(喚起) 시키고자 한다.

지구상 널리 분포(分布)되어 있는 메가리트텐툼(Megalithentum)이 아직도 완전(完全)한 의미(意味)에서 존재(存在)하는 곳 또는 극히 최근(最近)까지 존재(存在)했던 곳이 많다. 아프리카에 분포(分布)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서(西)로는 사하라사막(砂漠) 남부(南部)에서 동(東)으로는 남부(南部) 에티오피아까지 다시 북(北)은 티베스타지방에서 남(南)으로는 남아연방(南阿聯邦)까지 퍼져있다. 현재(現在)하는 메가리트 문화(文化)는 마다가스칼, 카프리스탄, 카라코룸, 히말라야, 인도, 인도지나, 인도네시아, 오세아니아 지역(地域)에 분포(分布)되어 있다. 유럽, 특히 지중해연안(地中海沿岸)에는 최근(最近)까지 존

1) Robert Freiherr von Heine-Geldern은 1885年 비엔나에서 출생(出生), 비엔나 大學에서 1914년 學位를 받았고, 美國에 건너가 오래 있으면서 뉴욕大學 콜롬비아 大學, 캘리포니아 大學에서 강의하고 第二次大戰後 歸國, 비엔나 大學의 교수로 학문연구와 강의를 하던 중 1968年 5月 25日 83歲를 일기로 서거함. 民族學, 先史學이 專攻이며, 특히 東南아세아가 그의 연구 영역임.

2) Megalith라는 말은 하이네-겔더른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이를 中國과 日本에서는 巨石文化라 번역한다. 이것을 巨石文化라 번역함 보다 메가리트텐툼으로 그대로 사용함이 좋겠다.

3) Steinkreise를 돌레이라 한 것은 돌들을 둥글게놓은 것이고 돌자체가 둥근 것이 아니다.

4) Steinhenge랑 높은 돌을 둥글게 세우고 그 위에 선돌과 선돌 사이를 가로 지른 돌이 있는것

재(存在)했으며 아직 존재(存在)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유럽인과 접촉(接觸)할 때까지 존재(存在)했던 메가리트문화(文化)의 기념물(記念物)이 갖는 의미(意味), 이데올로기적 기저(基底), 이들이 갖는 종교(宗教)나 사회(社會) 그리고 의례(儀禮)와의 관계(關係)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 기념물(記念物)이 워낙 넓은 지역(地域)에 분포(分布)되고 시대적(時代的)으로 긴 연대(年代)를 가지므로 모두 선사시대(先史時代)의 유물(遺物)인지 혹은 역사적(歷史的)인 관계(關係)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역사적(歷史的) 관계(關係)가 있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할 수 있다.

ㄱ) 메가리트기념물(記念物)이 형태상(形態上) 다양성(多樣性)을 보이나 일정한 지역(地域)마다 공통(共通)되는 형태상(形態上)의 특색(特色)이 있다. 그리고 지역 나름으로의 특색이 있으니, 예(例)컨대 유럽의 굴무덤(Ganggräber), 아프리카 동남부(東南部)의 남근석(男根石)(Phallusstein), 자바 동부(東部)의 판드후사(Pandfusa), 슘바섬의 환상적인 묘기형(妙記型)과 기념형(紀念型)의 형태(形態) 등이다. 이들이 지역적(地域的)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의 특수문제(特殊問題)가 되나 전체적(全體的)으로 보아 이것은 이차적(二次的) 의미(意味) 밖에 안된다. 이러한 특수(特殊)한 형태(形態)보다 널리 분포(分布)되고 또 시간적(時間的)으로도 긴 시폭(時幅)을 가진 기본형태(基本形態)가 있으니 선돌(Menhir), 선돌무리(Menhirreihen), 돌멘적 기념물(記念物), 돌레돌, 네모돌레돌(Steinvierecke)⁵⁾ 등이 그것이다.

ㄴ) 근년(近年)의 메가리트문화(文化)에는 석제기념물(石製記念物) 외에 목제(木製)가 있다. 이것은 석제(石製)를 대신하거나 같은 의미(意味)로 병존(并存)하기도 한다. 특수(特殊)한 형태(形態)로서의 목제(木製) 기념물(記念物)은 아프리카 최서단에서 수단까지, 남부(南部)에는 남이디오피아에 있고 마다가스칼, 인도, 인도지나, 인도네시아까지 분포(分布)되어 있다. 목제기념물(木製記念物)이 아세아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갔건 또는 그와 반대(反對)이건 간에 동일기원지(同一基源地)에서 발생(發生)한 것이며 또 아주 오랜 메가리트텐트의 초기(初期)에 속하는 것으로 그 발생지(發生地)를 찾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課題)이다.

ㄷ) 메가리트기념물(記念物)의 의미(意味), 그의 건립(建立)과 이에 따른 의례(儀禮) 그리고 이와 결부된 이념적기저(理念的基底)는 현존(現存) 메가리트 지역(地域)인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세아 그리고 오세아니아에 걸쳐 전체적(全體的)으로 공통성(共通性)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구약성서(舊約聖書)나 호머의 문헌(文獻)은 고대(古代) 지중해지역(地中海地域)의 메가리트텐트의 정신계(精神界)를 단편적(斷片的)으로 보여주며 이는 완전(完全)치는 않아도 다른 지역(地域)의 메가리트 풍속(風俗)과 유사하다. 이로소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소아세아 지역의 여러 민족문화(民族文化)가 가졌던 메가리트기념(記念) 유물(遺物)로서 이들이 가졌던 의미(意味)를 어느 정도(程度)까지 복원할 수 있다.

공통성(共通性)이 많고 특징성(特徵性)이 적기에 메가리트현상(Megalitherschienenungen)은 하나의 기원에서 유래(由來)되었으리라고 본다. 메가리트텐트의 일양성(一樣性)은 이미 다 아는 사실(事實)이고 적어도 그렇게 추측(推測)하여 왔다. 그 기원지(基源地)에 관하여는 유감스럽게도 의견이 구구하다. 잘 알려진 가설(假說)로 G. Elliof Smith와 W. J.Perry의 설을 들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메가리트드는 태양승배

5) Steinvierecke-돌을 놓되 돌레돌과 같이 둥글게 놓는 것이 아니고 네모나게 놓은 것

(太陽崇拜)와 관련(關聯)된 거석사용(巨石使用)(heliolithisch)의 문화(文化)에 속하는 것으로 애급에서 발생(發生)하여 금(金)이나 진주(眞珠)를 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세계(世界) 각지(各地)에 전래(傳來)된 것이리라 한다. 이 가설(假說)은 메가리트드문제(問題)를 전체적(全體的)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데서 학계(學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소멸되었고 이들은 한낱 공론가(空論家)로 취급(取扱)되었다.

근년(近年)에 유럽과 유럽이외의 메가리트드를 포괄적(包括的)으로 연구(研究)한 중에 불만한 업적(業績)이 있으니 예컨대 A. Serner, V. G. Childe, H. G. Bandi 등이다. 이들도 메가리트드무덤 만을 취급(取扱)하였고 특히 V. G. Childe는 선사시대(先史時代)의 것 그리고 지역적(地域的)으로는 유럽, 지중해(地中海), 소아세아, 인도에 한정(限定)된 연구(研究)였다. 이들이 갖는 다른 공통점(共通點)이란 이들이 연구(研究)한 기념물(記念物)이란 모두 원시적(原始的)인 형태(形態) 뿐이다. 적은 책(冊)이지만 가치(價値)있는 것은 J. Rödér의 연구(研究)다. 이는 비록 부분적(部分的) 문제(問題)인 선돌과 목제물(木製物)만을 취급(取扱) 하였으나 유럽과 유럽 이외의 것을 또 선사시대(先史時代)에서 최근(最近)의 것까지 총망라(總網羅)한데 의의(意義)가 있다. 메가리트텐틈에 관하여 근본적(根本的)이고 깊은 시심(時深)과 넓은 분포(分布) 공간(空間)을 망라(網羅)하고 모든 형태(形態)를 종합(綜合)한 총체적(總體的)인 연구(研究)는 아직 없다. 이러한 것을 요구(要求)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지 모른다. 그것은 메가리트텐틈이 선사시대(先史時代)에서 최근(最近)까지의 모든 문화(文化)에 걸쳐 있고 전세계적(全世界的)인 분포(分布)이기에 이에 관한 모든 문헌(文獻)을 빠짐없이 통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려운 것은 유럽 이외(以外)의 지역(地域)에 관한 메가리트드 연구(研究)가 잘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조만간 전체(全體)를 다루는 시도(試圖)는 있어야 할 것이다.

× × ×

이곳에 나는 수십년(數十年) 연구(研究)하여온 메가리트드 문제(問題)를 소개(紹介)함으로 이에 관(關)한 이해(理解)와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研究)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메가리트트기념물(記念物)은 과거(過去), 현재(現在), 미래(未來)를 통관(通貫)하는 어떤 일정(一定)한 세계관(世界觀)의 외적표현물(外的表現物)이다. 즉(卽) 메가리트트기념물(記念物)은 일정(一定)한 종말론(終末論)(eschatology)적 세계관(世界觀)⁶⁾과 이에 따르는 일정(一定)한 주제의례(Erlösungsriten)와 결부(結付)되어 있다. 메가리트텐틈이 아직 성행(盛行)되는 곳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의 하나는 심한 조상숭배(祖上崇拜)이다. 한편 이는 여러 가지 종교형태(宗教形態)와 연관(關聯)을 갖고 있다. 예컨대 지고신(至高神)(Hochgott)또는 천신(天神)(Himmelsgott)과 관련(關聯)되고 다신교적(多神教的) 신통(神通)과도 관련(關聯)이 있다. 곳에 따라서는 지방적(地方的) 신앙(信仰)과 밀접되기도 하고 주술적(呪術的) 색채(色彩)가 농후(濃厚)하기도 하다. 따라서 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메가리트트종교(宗教)”란 것은 부당(不當)하다.⁷⁾ 그러나 메가리트텐틈이 일정(一定)한 종교적(宗教的) 의례(儀禮)나 종교적(宗教的) 방향(方向)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마 우리는 메가리트텐틈을 이러한 뜻에서 신비적(神秘的) 운동(運動)(Mystische Bewegung)과 같은 것이라 할수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문화사적(文化史的) 층계(層階)를 이루면서 다른 종교(宗教)들의 지역적(地域的) 한계

6) 이곳의 終末論은 후에 보는 바와 같이 基督敎的 終末論과 다르다.

7) Megalithreligion-이 원래의 뜻은 基督敎, 佛敎와 같이 메가리트트 宗敎가 있다고 본 것이다.

(限界)에 구애됨 없이 넓은 분포(分布)를 보이기 때문이다. 혹 이것은 힌두교와 불교(佛敎)를 결합(結合)한 인도의 탄트리즘(Tantrism)과 비슷한 성격(性格)을 가졌다고 할까...

메가릿텐툼이 강하게 성행(盛行)하는 곳에서 메가릿트적 사유세계(思惟世界)(gedankenwelt)는 社會生活과 종교생활의 중심(中心)이 되기에 사람들은 기독교문화(基督敎文化) 또는 불교문화(佛敎文化) 하듯 “메가릿트문화”라는 말을 한다.⁸⁾ “메가릿트문화”라는 용어(用語)가 잘못이라는 것은 문화(文化)의 개념(概念)을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문화라하여 로마시대(時代) 후기(後期) 황제시대(皇帝時代)부터 중세(中世), 근세(近世)의 구라파(歐羅巴)에 기독교(基督敎)에 개종(改宗)한 아메시니아, 니제리아, 파푸아 등을 포함(包含)시키는 과오(過誤)와 같은 것이다.

이와같이 수정(修正)하여야 할 것의 하나는 근년(近年)에 어느 독일(獨逸) 민족학자(民族學者)가 말한 메가릿트적 문화권(文化圈)(Kulturkreise)이라는 용어(用語)다. 아마 파레스티나와 인도의 메가릿트무덤에서 발굴(發掘)된 부장품(副葬品)이 유럽의 그것과 같다는 고고학자는 없을 것이다. 유럽의 메가릿트무덤에서 발견(發見)되는 도구(道具)에도 차이(差異)가 있으니 V. G. Childe의 말을 인용(引用)하면 “메가릿트무덤은 어떤 문화복합(文化複合)의 특징(特徵)을 가진 한 문화(文化)로 취급(取扱)할 수 없는 것이 한 무덤에서 발견(發見)된 토기(吐氣), 도구(道具), 무기(武器) 및 장식물(裝飾物)이 다른 무덤에서 같은 식으로 발견(發見)된 예(例)가 없기 때문이다” 민족학(民族學) 방면(方面)에서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용어(用語) 즉 메가릿트문화(文化), 메가릿트문화권(文化圈) 등을 남용(濫用)하고 거기에도 다른 문화요소(文化要素)를 부가(附加)하니 예(例)컨대 태양숭배(太陽崇拜), 월신앙(月神仰), 어떤 일정(一定)한 신화(神話), 어떤 일정(一定)한 경작형태(耕作形態) 특(特)히 계단식전답(階段式田畝), 어떤 일정(一定)한 사회형태(社會形態) 특히 민족적(民族的) 부족사회(部族社會), 어떤 사람은 전제적(專制的) 추장권(酋長權)이 메가릿트문화(文化)에 속하는 문화특징(文化特徵)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권(父權), 어떤 사람은 모권(母權)을 이와 관련(關聯)시킨다. 이런 것들이 모두 옳다고 할 증거(證據)는 없다. 메가릿트텐툼은 어느 부족(附族)이나 민족(民族)에 한(限)하지 않고, 화전민(火田民)에만 또는 수전민(水田民)에만도 아니고, 모계사회(母系社會)에만 또는 부권사회(夫權社會)에만도 아니고, 민주적(民主的) 사회조직(社會組織)을 가진 부족(部族)에도 강력(強力)한 귀족적(貴族的) 또는 전제적(專制的) 왕권(王權)이 있는 왕조사회(王朝社會)에도 존재(存在)한다. 메가릿트는 반드시 어떤 묘제(墓祭)와만 관련된 것도 아니다. 앓삼 지방(地方)의 메가릿트문화(文化)를 보면 이곳에는 계단식수전경작(階段式水田耕作)과 화전(火田)이 병립(竝立)하여 모권적(母權的) 카시(Khasi)족(族) 부권적(夫權的) 나가(Naga)족(族), 민족적(民族的) 안가미(Angami)족(族), 전제적(專制的) 콘약(Konyak)족(族)이 다메가릿트를 가졌으며 카시족(族)은 시체(屍體)를 화장(火葬)하여 화옹을 메가릿트무덤에 놓고 안가미족(族)은 시체를 돌무더기에 매장하고 아오족(族)은 시체(屍體)를 대장(壹葬)한다.

그러나 일정(一定)한 지역(地域)에 한계(限界)를 두고 그곳의 일정(一定)한 문화요소(文化要素)들이 메가릿트에 속(屬)하며 이로써 하나의 문화층(文化層)을 인정(認定)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니 예(例)컨대 동남(東南)아세아의 어떤 일정(一定)한 공예술(工藝

8) Megalithkultur-다른 민족學者들이 말하는 메가릿트文化나 Heine-geldern이 本文에서 使用하는 메가릿트 文化는 다르니 다른 민족學者가 使用하는 것은 메가릿트적인 文化複合體를 말한다.

術)은 메가리트적 현상(現象)과 일치(一致)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떤 문화요소(文化要素)의 지역성(地域性)을 너무 두드러지게, 특징화(特徵化)시킬 것도 아니다. 영미계(英美系) 민족학에서와 같이 어떤 것은 두드러지게 어떤 것은 전혀 부인(否認)하면서 역사적(歷史的) 재편성(再編成)을 시도(試圖)하는 것은 삼가야될 것이다.

우리가 메가리트텐트의 본질(本質)과 그이 역사(歷史)를 조직적(組織的)으로 연구(研究)함에 있어 중요(重要)한 과제(課題)는 기념물(記念物)의 형태(形態), 종교적(宗教的), 또는 세계관적(世界觀的) 현상(現象), 이와 유기적(有機的) 관계(關係)를 가진 의례(儀禮) 그리고 사회적(社會的) 현상(現象)이다. 이런 의미(意味)에서 나는 메가리트복합(複合)(Megalithkomplex)이라는 말을 사용(使用)한다. 메가리트복합(複合)은 방대한 지역(地域)에 분포(分布)되어 있고 시간적(時間的) 간격도 넓기에 모든 지역(地域)에 분포(分布)되어 있고 모든 지역(地域)에 완전(完全)한 형태(形態)로 있을 수 없다. 지역(地域)에 따라 어떤 요소(要素)가 결여되기도 하고 또 어떤요소(要素)는 두드러지기도 한다. 이것은 기념물(記念物) 자체가 지역적(地域的) 차이(差異)를 보여주는 바와 같다. 그러기에 메가리트텐트가 갖는 분기의 시간적(時間的) 계보(系譜)와 공간적(空間的) 계통(系統)을 정돈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問題)이다. 더욱이 근년(近年)에 건립(建立)한 기념물(記念物)이 이웃한 전의 것보다 형태상(形態上) 고형(古形)인 것도 있으니 예(例)컨데 데칸지방 서부(西部)의 메가리트무덤은 철기시대(鐵器時代) 즉 B.C. 천년(千年) 후반기(後半期)에 속하는 것이며 이웃한 문다족(族)(Munda)의 것은 후에 건립(建立)한 것인데 그형태(形態)는 후기(後期) 신석기(新石器), 즉 B.C2천년말(千年末)이나 B.C 천년(千年) 초(初)에 속하며 동남(東南)아세아에서 인도에 이식(移植)된 것이다.

흔히 고대(古代)의 거석(巨石)으로 된 것, 예(例)컨데 인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메갈리트적인 것으로 본다. 이에 관하여 V.G. Childe의 의견이 옳은 것이니 그는 “어떤 물건이 메가리트에 속하느냐 아니냐하는 분류기준은 물질이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능에 있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에 말을 더 붙여 메가리트기념물(記念物)이 개별문제(個別問題) 건 전체문제(全體問題)이건 또 메가리트복합(複合)이 단일기원(單一起源) 이건 아니건 보다 중요(重要)한 것은 기능(機能)이라고 하겠다. 메가리트 복합(複合)은 작은 돌로 된 기념물(記念物)과 목제기념물도 많이 갖고 있다. J.H Hutto가 나가를 연구(研究)한 이후 나무들레(Woodhenge)⁹⁾와 선사시대(先史時代) 목제기념물(木製記念物)이 많다는 것, 목(木)과 석(石) 사이에 근본적(根本的) 차이(差異)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메가리트적”이라는 용어(用語)를 광의적(廣義的)으로 또 다의적(多義的)으로 사용하니 앞으로 메가리트적 의례(儀禮), 메가리트적 세계관(世界觀), 메가리트적 목제기념물(木製記念物) 등을 볼 것이다. 이러한 용어상(用語上)의 비논리적(非論理的) 사용(使用)이 말의 장난이나 야릇한 마음에서가 아니고 현재(現在) 메가리트 민족(民族)이 사용(使用)하는 용어(用語)를 충실히 기록(記錄)하여 그들을 보다 잘 이해하려고 힘쓴 것 뿐이니, 예(例)컨데 마다가스칼의 메나베족(Menabe)은 석제(石製)와 목제(木製)로 기념물(記念物)을 만들고 목제(木製)를 Vato La by hazo라 한다. 이것은 목제(木製) 석기념물(石記念物)이란 뜻이다.

× × ×

우리가 메가리트복합(複合)의 기저(基底)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메가리트복합(複合) 완전(完全)히 보존(保存)되어 있는 지역(地域), 즉 카휘리스탄, 인도, 인도지나, 인도네시아

9) Woodhenge-Steinhenge와 같은 모양을 나무로 만든 것.

아, 오세아니아 그리고 마다가스칼을 연구(研究)하여야 된다. 이 넓은 지역(地域)을 나는 “동반부(東反部)” (Ostgebiet)라 부른다.

이 동반부(東反部) 메가리트문화(文化)에 널리 분포(分布)된 풍속(風俗)은 사자(死者)를 위해 기념물(記念物)을 세우는 것으로 특히 선돌(Menhir), 고인돌(Dolmen) 또는 선돌과 고인돌의 혼합형인 디소리트(Dissolithen)를 건립(建立)한다. 무덤 앞에 선돌을 세우는 예(例)는 흔하지 않으며 선돌은 대부분(大部分) 무덤과 무관(無關)하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같으니 무덤 앞에 선돌이 있는 것은 흔하지 않다. 고인돌 돌멘이라는 용어(用語)를 검토(檢討)할 필요가 있다. 고고학자(考古學者)들은 돌멘하면 바로 무덤을 연상하고 그 형태(形態)는 4개의 편편한 돌이 둘러싸서 있고 그위에 수평(水平)의 덮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민족학자(民族學者)나 민속학자(民俗學者)는 돌멘하면 기념물(記念物)을 연상하고 그 형태(形態)는 돌 이상의 바침돌이 덮개돌을 고이고 있으며 하나의 석실(石室)이 없고 무덤이 아닌 것도 포함(包含)시킨다.

나는 이에 고인돌, 즉 돌멘을 두 유형(流刑)으로 대분하여 하나는 기념(記念)돌멘(Denkmaldolmen) 하나를 무덤돌멘(Grabdolmen)라 한다. 진짜 무덤고인돌은 동반부(東半部)에 드물다. 예외(例外)는 데칸지방인데 이곳의 무덤고인돌은 B.C 천년(千年)경 아마 서부(西部)에서 이곳에 이동(移動)한 드라비다족(族)(Drawida)이 가져 온 것일 것이다. 이와는 달리 기념(記念)고인돌이 무덤 위에서 있는 예(例)는 앳삼지방(地方)의 제부족(族), 특(特)히 문다족(族)(Munda), 호족(族)(Ho)에 있다. 아프리카에는 선사시대(先史時代) 무덤 위에 기념(記念)고인돌이 있는 것이 아베시니아의 하랄지방, 수단(蘇丹)의 모로미세 지방(地方)에 있다. 동반부(東半部)에서나 아프리카에서 이외(以外)의 지역(地域)에는 흔하지 않다 유럽에도 기념고인돌이 흔하다. 건립연대(建立年代)는 분명치 않고 다만 이것이 중세(中世) 혹은 그 후대(後代)까지 재판(裁判)이나 대관석(戴冠石)등으로 사용(使用)되었다.

동반부(東半部)에서 메가리트 기념물(記念物)은 사자(死者)를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하여 세우기도 한다. 이는 기념물(記念物)을 세우는 사람이 그의 부족(部族)이나 부락(部落)을 위하여 공영축전시(功勞祝典時)에 세운다. 이러한 예(例)는 수없이 많고 이때의 비용, 즉 제물용(祭物用) 동물의 수(數), 기념물(記念物) 건립(建立)에 동원(動員)된 사람들의 생활비(生活費)등은 상당한 것이다. 따라서 축전(祝典)은 부유한 사람이 행(行)하고 또 대부분 풍년(豐年) 뒤에 행(行)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념물(記念物) 건립(建立) 공사(工事)를 완수(完遂)하기 위하여 일년 또는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다. 축전(祝典)이 절정(絶頂)에 달한 때 메가리트기념물(記念物), 즉 선돌, 기념고인돌 또는 대석(臺石)(Steinplattform)을 세운다. 복잡한 의례(儀禮)의 핵심은 소를 제물(祭物)로 바치는 것이며 이 소란 지역(地域)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소, 물소, 들소 등이다. 때로는 소싸움이 있기도 하다. 예(例)를 들면 앳삼지방(地方)의 아오나가족(族)(Aonaga)은 축전시(祝典時) 청년들이 소를 둘러싸고 돌며, 마다가스칼의 타나라족(族)(Tanala)은 소를 둘러싸고 마구 두드리다가 뿔을 보자기로 싸매고 등에 뛰어 오르기도 한다.

이러한 축전(祝典)과 이에 따른 기념물(記念物) 건립(建立)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ㄱ) 축전(祝典)을 베푸는 사람은 이것을 통하여 보다 높은 사회적(社會的) 지위(地位)를 얻고 또 어떤 특권(特權)을 갖는다. 예(例)컨데 칭호(稱號)를 얻거나 일정(一定)한 복장

(服裝)과 복식(復飾)을 할 수 있거나 그의 집에 어떤 장식을 할 수 있다.

ㄴ) 석제기념물(石製記念物)은 그 건립자(建立者)의 이름을 따라 부르고 그의 이름을 오래 보존(保存)한다.

ㄷ) 비록 개별적(個別的) 의미(意味)는 약간씩 차가 있지만 기념물(記念物)과 그 건립 의례(建立儀禮)는 건립자(建立者)의 명복(冥福)을 위하는 것이다. 예(例)컨데 안가미나 가족(族)(Angami naga)은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가며 그 곳에서 문지기와 싸우고 일곱 개의 저승을 거치는 동안 많은 싸움 끝에 결국 무(無)로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메가릿트기념물(記念物)을 세우고 축전(祝典)을 베푸는 사람은 죽은 후(後) 저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고신(至高神)이 있는 하늘나라에 승천(昇天)하여 그의 옆에 앉는다고 한다. 이런 유형(類型)의 신앙(信仰)은 널리 분포(分布)된 것이니, 니아스도에서는 축전(祝典)을 베풀고 기념물(記念物)을 세운 귀족(貴族)의 혼(魂)은 죽은 후 황금천당(黃金天堂)에 가 천사와 같이 있게 된다고 믿는다. 뉴해부리드도(島)에서도 메가릿트기념물(記念物)과 이에 따른 축전(祝典)은 저승길의 안전(安全)을 위하여서 한다. 이와같이 많은 부족(部族)의 기념물(記念物)과 축전(祝典)은 사후(事後)의 보다 나은 명복(冥福)을 바람에서이니 축전(祝典)에 바친 소는 이를 바친 사람을 저승길에 따라가면서 그를 보호하고 저 세상에서도 그의 재산(財産)이 되는 것이다.

이상 세가지의 기능은 서로 관련(關聯)되어 있는 것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은 생전의 사회적(社會的) 지위(地位)와 관계(關係)를 가지며 또 죽은 사람의 이름을 오래도록 세상에 남긴다는 생각이다.

ㄹ) 넷째 기능(機能)은 이러한 축전(祝典)이나 기념물(記念物)이 풍년(豐年)과 부를 구하는 주술(呪術)적 의미(意味)를 갖는다. 요약하여 말하면 축전(祝典)을 베푸는 사람이 축전(祝典)을 통하여, 자기 토지(土地)나 가족의 번영력(繁榮力)을 각 부족(部族)이나 부락민(部落民)의 토지(土地)나 가족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며 동시(同時)에 기념물(記念物)과의 연결에서 미래에도 이러한 반응을 누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사후(事後)에도 축전(祝典)을 베푸는 사람의 영혼은 그의 기념물(記念物)을 수시로 방문하여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의 번영력(繁榮力)을 확인한다. 그러기에 많은 부족(部族)들은 기념물(記念物)을 주로 밭에 세우고 또 아이를 바라는 부인(夫人)들이 이곳을 찾아 오기도 한다.

유감스럽게도 산 사람이 기념물(記念物)을 세우고 축전(祝典)을 베푸는 실례(實例)를 많이 보고받지 못하였다. 가장 성행(盛行)된 곳은 앗삼지방(地方)의 산간민, 미안마의 서북부(西北部)이다. 인도네시아에는 니아스도(島), 후로레스도(島) 그리고 스마트라도(島) 남부(南部)에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전에 자바도(島)에 성행(盛行)하던 것이 인도방면(方面)의 이슬람교(敎)의 영향으로 소멸(消滅)되었다고 한다. 메라네시아지방(地方)에는 뉴해부리드도, 방크도등에 희미한 형태(形態)로 남아있다. 포리네시아지방(地方)에는 거의없고 극동부(極東部)인 마르케사스도, 오스터도등에 최근(最近)까지 있었다. 카후리스탄지방(地方)에는 19세기(世紀)까지 있었고 K. Jettmar에 의하면 칼코름지방(地方)의 계곡에 많은 유물(遺物)이 있다고 한다. 소가 없는 지방(地方)에서는 제물(祭物)로 다른 풍물(風物)을 바치니 메라네시아의 니아스도(島)에서는 돼지, 오스터도(島)에서는 닭을 바친다.

생전(生前)에 자기(自己)를 위하여 세운 기념물(記念物)이건 죽은 이를 위하여 세운 기념물(記念物)이건 간에 형태(形態)에 차이(差異)는 없다. 모두 기념물(記念物)과 관계(關係)된 사람의 이름을 오래 보존(保存)한다. 산사람이 만든 기념물(記念物)은 그의 사

후(死後) 무덤이 되기도 한다. 앓삼지방(地方)의 어느 부족(部族)은 반드시 생전(生前)에 세우고 어느 부족(部族)은 두 경우를 혼합(混合)한 경우도 있다. 니아스도에도 같은 방식(方式)으로 생전(生前)에 자기(自己)를 위하여 기념물(記念物)을 세우기도 하고 죽은 이를 위하여 그 후손(後孫)이 세우기도 한다. 루세이족(族)(Lushei), 렌그마족(族)(Rengma), 나가족(族)(Naga)등에서는 주로 죽은이를 위하여 기념물(記念物)을 세우고 생전(生前)에 세우는 사람은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있어도 믿을 수 없을 경우에 세운다.

축전(祝典)과 장례(葬禮)가 구별(區別)되기 어려운 것도 많고 양자(兩者)가 혼합(混合)되거나 과도적(過渡的) 형태(形態)도 있다. 니아스도에서는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되면 축전(祝典)을 베풀고 기념물(記念物)을 세우게 한다. 뉴헤부리드도, 니아스도의 일부(一部)에서는 고령(高齡)이거나 죽을 병이 든 사람의 장례(葬禮)로서 죽기전에 축전(祝典)을 베풀다. 니아스도의 다른곳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그의 자식이 기념물(記念物)을 세우고 축전(祝典)을 베푸는 바 이것은 바로 장례(葬禮)이며 이로써 자식은 망부(亡父)의 칭호(稱號)와 사회적(社會的) 지위(地位)를 얻는다. 오스처도(島)에서도 이와 같으며 이로써 자식은 남의 존경을 받는다. 카휘른 지방(地方)에서도 위와 같은 의미(意味)의 장례축전(葬禮祝典)이 행해진다. 인도의 가다바족(族)(Gadaba)도 축전(祝典)을 베풀 사람은 다만 죽은 이를 위한 축전(祝典)을 행해야지만 사회적(社會的) 고지위(高地位)를 얻는다.

흔히 선들은 여러개(個)를 동시에 세우니 나가족(族)은 본인(本人)과 부인(婦人)의 것 두 개를 세운다. 어떤 곳에는 기념물(記念物)이 무리로 있으니 이것은 본인(本人), 조상(祖上) 그리고 그이 가족원을 위하여 세운 것이다. 렌그마나가족(族)에서 선들이 18개(個) 나란히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본인(本人), 그이 부모(父母), 부인(婦人), 자녀(子女) 그리고 가까운 친척(親戚)을 위한 것이다. 앓삼지방(地方)의 카시족(族)은 기념물(記念物)을 무리로 세우고 죽은 부모(父母), 산가족원을 표시(表示)한다. 중간에 제일 큰 선들은 모친(母親)의 선조(先祖), 다른 둘레의 작은 것은 모친(母親)의 형제(兄弟)를 표시(表示)한다고 한다. 이들 선들 무리앞에 큰 돌이 놓여 있으니 이것은 씨족(氏族)의 선조모(先朝母)를 표상(表象)한다 하니 이것은 모친(母親)을 표시(表示)하는 것이다. 망부(亡父)를 위하여 세 개의 선들을 세운 곳이 있는데 이는 부친(父親), 부친(父親)의 형제(兄弟)를 위함이다. 인도의 문다족(族), 후로레스의 느가다족(族) 등도 선들을 무리로 세우고 가족기념물(家族記念物)로 삼는다. 이러한 기념물(記念物)을 무리로 세우는 풍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넓은 분포(分布)를 가졌을 것이다. 같은 양식(樣式)이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럽의 선들 무리도 이 유형(類型)의 의미(意味)를 갖는 것이리라. 동반부(東半部)의 대륙(大陸)에서 도서지방(島嶼地方)까지 널리 분포(分布)된 신앙(信仰)의 하나는 기념물(記念物)을 생전(生前)에 세웠건 사후(死後)에 세웠건 기념물(記念物)과 관계(關聯)된 영혼(靈魂)이 이를 방문(訪問)한다고 믿는 것이며 특(特)히 기념고인돌이나 대석(臺石)은 그영혼(靈魂)의 교석(橋石)으로 생각한다. 자릿돌(Steinsitzen)과 선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는 이 선들을 영혼(靈魂)이 등을 기대는 곳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런 기념물(記念物)은 영혼(靈魂)만이 아니라 산사람의 교석(橋石)으로 사용(使用)된다. 따라서 집이나 마을의 길가에 이런 것을 세울 뿐 아니라 산길에도 세워 사람들이 쉬어가게 한다. 이리하여 기념물(記念物) 또는 영혼(靈魂)의 교석(橋石)이라는 본래(本來)의 의미(意味)를 상실(喪失)하게 되었으니 스마트라의 바리도, 다른 인도네시아의 여러서, 오세아니아

등에 이런 형상(形象)을 많이 볼 수 있으니 이를 요약(要約)하여 메가릿트성소(Megalithplattz)라고 하자. 메가릿트성소가 사회적(社會的) 행사(行事)나 의례적(儀禮的) 행사(行事)의 중심지(中心地)가 되어 있는 곳은 동반부(東半部)에 널리 분포(分布)되어 있으니 카후리스탄에서 오스터도까지 있다. 이 형태(形態)도 다양하니 크게 보아 도형(圖形), 사각형(四角形), 타원형(橢圓形) 또는 배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런 메가릿트성소를 선돌, 기념고인돌, 디소릿트 또는 간단히 돌을 놓아 만들고 때로는 대석(臺石)이 있기도 하다. 가장 많은 것은 선돌을 세우고 회의(會議)나 의례(儀禮)에 모인 사람들이 등을 기대게 한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노천극장(露天劇場)처럼 돌로 만든 곳도 있다. 이런 돌은 축전(祝典)이나 장례(葬禮)시 세운 것이고 메가릿트성소 자체가 축전기념물(祝典記念物)이기도 하다. 안가미나가족(族)의 부락(部落)에서 볼 수 있는 집회소(集會所)나 무용장소(舞踊場所)로 사용(使用)되는 메가릿트성소는 축전(祝典)이 크게 베풀어졌던 곳이다. 말케사도의 메가릿트성소들도 축전(祝典)시 이룩된 것이며 이들은 집회소(集會所), 재판소(裁判所), 무용소(舞踊所), 의례소(儀禮所)로 사용(使用)되고 그 중 어느 것으로 더 많이 사용(使用)되는지는 부족(部族)에 따라 다르다. 메라네시아, 특히 뉴헤브리드도에서는 의례소(儀禮所)와 무용소(舞踊所)로만 사용(使用)된다. 폴리네시아의 중동부(中東部) 마레스에서는 다만 의례소(儀禮所)로 사용(使用)된다. 이런 의례(儀禮)에는 일정(一定)한 신(神)을 제사하는 어떤 의미(意味)의 사원(寺院)의 기능(機能)을 한다. 많은 메가릿트성소에서 무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부락민(部落民)이 받드는 조상(祖上)의 무덤이다. 대표적(代表的)인 예(例)는 마르케사, 특히 오스터도의 아후스족(Ahus)에서 볼 수 있다. 메가릿트성소가 흔히 부락(部落)의 시조(始祖), 부족(部族)의 시조(始祖)와 관계(關係)를 가졌으니, 그 관계(關係)란 시조(始祖)의 무덤이나 기념물(記念物)이 성소(聖所)의 중심(中心)이 되거나 그가 살던 집이 중심(中心)이 되는 것이며 그 집에는 그의 후손(後孫)이 살고 있다. (카시, 나가, 니아스, 후로레스등)

메가릿트성소의 석석(石席)은 일정(一定)한 가족(家族)에게 속하여 상속(相續)된다. 대표적(代表的)인 예(例)는 폴리네시아의 마레스족, 뉴기니아 동남부(東南部)의 맛심족(族) 등이고 인도네시아의 타님발도, 인도의 가다바에서도 이런 보고(報告)가 있다. 좀더 주의하여 본다면 이러한 현상(現象)은 훨씬 많이 분포(分布)되어 있으리라 본다. 일정(一定)한 돌을 점유(占有)한다는 것은 일정(一定)한 권리(權利)와 결부(結付)되어 있는데 예 중요한 의미(意味)를 갖는다. 폴리네시아의 경우 어떤 가족(家族)이 일정(一定)한 돌을 점유(占有)한다는 것은 그 가족이 갖는 사회적(社會的) 지위(地位)를 표시(表示)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일정(一定)한 토지(土地)를 소유(所有)한다는 권리(權利)의 표시(表示)이기도 하다. 같은 것이 인도의 문다족(族), 호족(族)에서 보고(報告)되며 이 권리(權利)는 토지(土地)와 사회적(社會的) 지위(地位)를 표시(表示)한다.

☆ ☆ ☆

동반부(東半部)에서 보아 온 메가릿트 문화(文化)의 제특색(諸特色)이 서반부(西半部) 메가릿트지역(地域)에도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問題)이다.

나는 가능(可能)한 모든 문헌(文獻)을 철저히 검토하였으나 아프리카지역(地域)에 소수(小數)의 예(例)를 볼 뿐이다.

선돌, 디소릿트 및 대석(臺石)등으로 이루어진 특색(特色)있는 메가릿트성소는 아베시니아의 남부의 콘소족(Konso)에 있다. 이 성소(聖所)는 집회소(集會所)나 의례소(儀禮所)로 사용(使用)된다. 가장 신성시(神聖視)되는 의례소(儀禮所)에 넓은 대석(臺石)이 있

으니 이는 부락시조(部落始祖)가 앉는 곳이라 한다.

이곳 옆에 사제(師弟)와 최고지위자(最高地位者)의 집이 있으며 이집은 부락시조(部落始祖) 후계자(後繼者)의 것이다. 이들은 동남(東南)아시아에서 본 것과 같은 현상(現象)이다.

백(白)나일강 상류지방(上流地方)의 로코야족(族)(Lokoya)과 로투코족(族)(Lotuko)에도 메가릿트성소(聖所)로 어떤 것은 선들을 기뻐데로 한 대석(臺石)이 있다. 고르도환지방(地方)의 누나족(族)(Nuna)에서는 들레들을 집회소(集會所), 재판소(裁判所), 의례소(儀禮所)로 사용(使用)한다. 더 서부(西部)로 가면 메가릿트성소는 니제리아에서 세네갈비아까지 분포(分布)되어 있고 이들의 일부(一部)는 아세아에서 본 것과 같다.

아프리카에도 영혼(靈魂)이 앉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다. 백(白)나일강 상류(上流)의 롱고족(族)(Longo)에서 사람들은 죽은이를 위하여 작은 고인들을 만드는데 이는 영혼(靈魂)이 앉는 곳이다. 아호리족(族)(Acholi)이나 딕카족(族)(Dinka)도 망자기념물(亡者記念物)을 그의 영혼(靈魂)이 앉는 곳으로 만든다.

보다 중요(重要)한 문제(問題)는 아프리카에도 축전(祝典)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코르도환지방(地方)의 누족(族)에 관한 S.F.Nadel의 보고(報告)는 이러한 현상(現象)이 있음을 증명(證明)한다. 이 부족(部族)에서 부자(富者)가 높은 사회적(社會的) 지위(地位)를 얻고 새로운 칭호(稱號)를 얻기 위하여 축전(祝典)을 행(行)한다. 이 때 소를 제물(祭物)로 바치며 마지막에 의례적(儀禮的) 의미(意味)를 갖는 창으로 소를 죽이니 이는 마치 앓삼지방(地方)과 마다가스칼의 예(例)와 같다. 즉 이 의례(儀禮)에서 부(富)를 기원하고 여자들은 다산(多産)을 기구한다. 그러나 이 의례(儀禮)에 어떤 종말론적의미(終末論的意味)는 없다. 이것이 메가릿트기념물(記念物)과 어떤 관련(關聯)을 가졌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소를 제물(祭物)로 바치고 소를 치는 것 등이 보다 높은 사회적(社會的) 지위(地位)와 칭호(稱號)를 얻고 또 존경을 받는 것과 관련(關聯)되는 것이나 부나 다산(多産)의 기원을 이것과 연결시킨다는 데서 이는 축전(祝典)이라 할 수 있다.

E. Zintgraff는 카메룬지방(地方)의 선들무리는 제일 큰 것을 중심(中心)으로 작은 것이 들레를 이루고 있다 한다. 그는 이 기념물(記念物)이 부자(富者)가 자기(自己)와 자기자녀(自己子女)를 위하여 세웠고 이때 전부족이 축전(祝典)에 참가(參加)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생전(生前)에 기념물(記念物)을 세우고 이와 관련(關聯)된 축전(祝典)이 있음을 증명(證明)한다. 동시(同時)에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와 같이 이곳에 가족집단(家族集團)을 위한 석석(石席)이 있다. 아프리카에 관하여 이와같은 사실이 얼마나 문헌(文獻) 중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메가릿트기념에 관하여 문헌(文獻)에 제일 적은 지방(地方)의 하나가 파레스티나이다. 이곳에 다만 두 예(例)를 들 수 있을 뿐이다. 하나는 구약성서(舊約聖書)에 “Ruben의 자 Bohan의 돌”이라 있다. 이것이 생전(生前)에 세운 돌인지 사후(死後)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동반부(東半部)에서 보았듯 기념물(記念物)이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David의 아들 Absalom이 자녀가 없어 생전(生前)에 선들을 세우고 자기(自己) 이름을 이곳에 오래 보존(保存)케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기념물(記念物)에 자기(自己) 이름을 부쳐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것을 Absalon기념물(記念物)이라 부른다.“ 이것은 동남(東南)아시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녀(子女)없는 사람이 자기(自己) 이름을 오래도록 세상에 남기기 위하여 생전(生前)에 기념물(記念物)을 세우는 것이다. 파레스티나지방(地方)에 축전(祝典)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은 확실치 않다.

Hommer의 기록(記錄)을 보면 아고라지방(地方)에 돌레들이 있었다. 이 지방(地方)에 비록 후기(後期)에 속하나 장군무덤(Heroengräber) 특히 도시건립자(都市建立者)의 무덤이 그의 이름을 보존(保存)하고 있는 것이 마치 메가릿트적 특색(特色)을 보여준다. 유럽에는 중세(中世) 및 근세(近世)까지 메가릿트성소를 재판소(裁判所), 집회소(集會所)로 사용(使用)하던 습관이 있었다. 이에 관(關)한 예(例)는 많지만 들어보면 J. Meier의 메가릿트성소(聖所)를 의례소(儀禮所), 무용소(舞踊所)로 사용(使用)하던 설화(說話)의 수집은 흥미로운 것이다. 덴마크의 슈레스비히-홀슈타인 지방(地方)에 일정(一定)한 돌이 일정(一定)한 가족(家族)에게 속하는 것이 있다. 1916년 Lambertz 교수(教授)의 보고(報告)에는 알바니아지방(地方)에도 집합소(集合所)나 재판소(裁判所)의 기능(機能)을 하는 장소(場所)가 반원형(半圓形)을 이룬 돌레들로 되어 있고 그 돌들을 일정(一定)한 가족(家族)에 속한다고 한다. 시벤부르거 지방(地方)에도 일정(一定)한 가족(家族)에 속하는 돌들이 등글게 놓여 있고 이곳은 장례소(葬禮所)로 사용(使用)된다. 이러한 유럽에서의 예(例)가 인도, 인도네시아, 오세아니아의 메가릿트성소(聖所)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종말론적(終末論的) 의미(意味)의 기념물(記念物) 건립(建立)의 예(例)는 유럽에서도 볼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선들을 세우는 풍습(風習)이 역사시대(歷史時代)까지 있었으니 기독교화(基督教化)된 스웨덴족(族)은 기독교적(基督敎的)인 공동묘지(共同墓地)를 만들고 기독교적(基督敎的)인 장례(葬禮)를 갖되 기독교(基督敎)와는 무관(無關)한 선들을 세운 것이다. 이러한 중세(中世) 스웨덴의 기념물(記念物) 건립(建立)과 그곳에 글을 기입(記入)하는 것은 마치 앓삼지방(地方) 산간민(山間民)의 것과 같다. 대부분(大部分) 십일세기(十日世紀)에 속하는 이러한 기념물(記念物)과 글은 죽은 이를 위하여 만든 것이고 또 산 사람이 자기(自己)자신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다리 위에 세워진 사개(四個)의 돌에 “Jarlabauke는 이 돌을 그의 기념물(記念物)로 세우니 이 다리는 그의 영혼(靈魂)을 위함이다.”라고 쓰여 있다.

이곳에 우리는 분명(分明)히 기독교(基督敎)와는 관계(關係)없는 생자(生者)의 기념물(記念物) 건립(建立)이 종말론적(終末論的) 의미(意味)를 갖고 있음을 본다. 동반부(東半部)와 아프리카에서 축전시(祝典時) 생자(生者)가 기념물(記念物)을 세우는 풍습(風習)을 보고 유럽에서도 중세(中世) 이러한 축전(祝典)이 있었겠다고 바로 추측(推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길가에 돌로 교석(橋石)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옳은 것이니 나가족(族)이 축전시(祝典時) 고인돌 고인돌 모양의 기념물(記念物)을 세우고 이를 쉬는 교석(橋石)으로 사용(使用)하고 기념물(記念物) 건립자(建立者)의 영(靈)이 쉬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저 세상에서 보다 낮게 살기 위한 것과 같다.

서(西)유럽에 특(特)히 강하게 분포(分布)되어 있는 신앙(信仰)의 하나는 메가릿트기념물이 다산적(多産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여자들이 기념물(記念物)을 찾아와 다산(多産)을 기원하니 메가릿트기념물이 원래(元來)의 의미(意味)를 상실(喪失)하였으되 망자(亡子)의 영혼(靈魂)과 다산(多産)이라는 것이 관련(關聯)되어 있음을 말한다.

☆ ☆ ☆

동반부(東半部)메가릿트지역(地域)과 아프리카에 흔한 것의 하나는 석제기념물(石製記念物)과 목제기념물(木製記念物)이 같이 있거나 하나가 하나를 대신하거나 한다 때로는 선들을 세울 때 목제(木製)나 석제(石製)를 사용(使用)하느냐 하는 선택(選擇)이 필요하

다. 목제기념물(木製記念物)은 그의 다양(多樣)한 형태(形態)로 보아 현재(現在) 메가릿트문화에 중요(重要)한 의미(意味)를 갖고 또 널리 분포(分布)되어 있는 것의 하나이다.

앗삼지방(地方), 미얀마지방(地方)의 산간민(山間民)은 축전시(祝典時) 선돌이외에 목제이지주형(木製二枝株型)의 기념물(記念物)을 세운다. 어느 부족(部族)은 선돌 없이 이지주(二枝柱)(Gabelpfahl)¹⁰⁾ 만을 세운다. 이들은 선돌을 대신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定度) 같은 의미(意味)를 갖는다. 이지주(二枝柱)는 인도, 니아스도, 후로레스도, 솜바도, 티목도 그리고 마다가스칼도에도 있다. 육지(陸地)나 후로레스도의 많은 부족(部族)에서 보는 이지주(二枝柱)는 원천적(源泉的) 의미(意味)를 갖는 헌주(獻柱)(Opferpfahl)로 이곳에 소를 매어 두었다가 기념물(記念物)로 남긴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헌주(獻柱)로서가 아니라 축전(祝典)이나 장례시(掌禮時) 하나의 기념물(記念物)로 세운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그 이지(二枝)위에 제물(祭物)로 바쳤던 소의 머리나 꼬리를 얹어 놓는다. 소가 있되 변화(變化)된 의미(意味)를 갖거나 메가릿텐툼과 직접적인 관계(關係)가 없는 이지주(二枝柱)가 널리 분포(分布)되어 있으니 예컨대 니아스도, 뉴기니아, 메라네시아 그리고 동부(東部) 폴리네시아 등에서 볼 수 있다. 동반부(東半部)에서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이지주(二枝柱)가 많으니 남부(南部) 아베시니아, 발엘가살지방(地方)의 모로족(族), 본고족(族), 다호메지방(地方), 상아해안(象牙海岸), 서수단 지방(地方)의 도곤족(族)에 있고 세네감비아지방(地方)에도 있으니 이곳에서는 선사적(先史的) 석제(石製物)을 대신한다.

이지주(二枝柱)의 크기와 모양은 지방(地方)에 따라 다르니 5m또는 그 이상이 되는 큰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다. 이 작은 것은 제물(祭物)로 바친 소를 기르던 집 앞에 세운 것이다. 대부분(大部分)은 장식이 없으나 때로는 많은 장식을 해 놓았다. 나가족(族), 쿠키친족(族)은 이지주(二枝柱)에 소 머리를 조각(彫刻)하였다. 조각(彫刻)의 경우 의인형(擬人型)도 많다. (앗삼 지방(地方)의 가로족(族), 나가족(族), 니아스, 후로레스, 티몰, 뉴헤부리드, 하와이, 만가레바, 수단지방(地方)의 본고족(族)) 의인형(擬人型)의 경우 부족(部族)에 따라 다르나 남성(男性) 여성(女性)이 분명(分明)하다. 나가족(族)의 이지주(二枝柱)에는 많은 각목(刻木)이 있는데 이는 아마 그곳에 바친 소의 수를 표시(表示)한 것이리라. 이런 각목(刻目) 조각(彫刻)은 인도의 콘드족(族), 후로레스의 나가족(族), 솜바도, 남뉴기니아 동부(東部), 방크도, 만가레바도 그리고 수단의 모로족(族)에서는 이 각목(刻目)의 수는 그 기념물(記念物)을 세운 사람이 가졌던 소의 수(數)를 표시(表示)한 것이다. 본고장에는 각목(刻目)의 수가 그 건립자(建立者)가 생전(生前)에 사냥한 동물의 수를 표시(表示)한 것이다.

이지주(二枝柱)의 넓은 분포(分布), 즉 동반부(東半部)와 아프리카의 메가릿트문화(文化)에서도 볼 수 있고 그 형태(形態)나 각목(刻目)등으로 보아 이는 메가릿텐툼의 초기(初期)에 속한다. 우리는 확실히 동남(東南)아시아의 이지주(二枝柱)는 후기(後期)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즉 B.C 2천년말(千年末)이나 B.C 1천년초(千年初)의 것이라 본다. 애굽에서는 B.C 이천년(二千年) 또는 그보다 오래된 가능성이 많다 이지주(二枝柱)는 아마 메카릿텐툼의 초기(初期)에 속하는 원형적인 것의 하나이리라.

고대파레스티나에도 선돌(massebah)과 목제주(木製珠)(ascherah)가 같이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목제주(木製株)의 원형(原型)은 모르겠다. 고대(古代) 유럽에도 목제(木製)

10) Gabelplahl-이는 지게작대기 모양을 한 큰 나무로 된 기둥인데 二枝柱라 번역함.

의 기념주(記念株)가 많았고 이것이 선들과 같은 의미(意味)를 가졌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事實)이나 그상부의 모양은 알 수 없다. 목제주(木製株)가 발굴(發掘)될 때 많은 우두골(牛頭骨)이 발견(發見)된다. 이지주(二枝柱)의 아시아, 아프리카 등 넓은 분포(分布)와 그의 연대(年代)로 보아 유럽에도 있을 가능성(可能性)이 많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증거물(證據物)이 발견(發見)되었으면 좋겠다.

☆ ☆ ☆

전체적(全體的) 메가릿텐톱을 과제(把提)하기 위하여 석제기념물(石製記念物)의 세가지 의미(意味)를 보겠다.

카시족(族), 머리족(族), 나가족(族) 그리고 앓삼의 친족(親族)에서는 선들을 선서기념물(宣誓記念物) 조약기념물(條約記念物)로 세운다. 북아(北阿)의 카비렌족(族)은 18세기(世紀)까지 이런 것이 있었다. 구약성서(舊約聖書)에도 Jakob과 Laban이 조약(條約)을 체결(締結)하고 석제(石製)기념물(記念物)을 세웠다는 것이 있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도 어떤 서약(誓約)을 시행하기 위해 석제(石製) 기념물(記念物)을 세우는 일이 동반부(東半部)뿐 아니라 유럽에도 있다. 즉위식(即位式), 대관식(戴冠式)이 있는 후 이를 기념(記念)하기 위해 기념(記念) 돌면을 세우는 예(例)를 동반부(東半部)에서는 카시족(族), 고나그나가족(族), 타이족(族) 니아스, 자바, 세레베스, 휘지, 그리고 전 포리네시아에 있고 아프리카에도 흔하다. 유럽에도 고북방족(族), 앵겔삭슨족(族) 쇼트족(族) 그리고 독일(獨逸)에서는 중세(中世)까지 대관기념석(戴冠記念石)의 풍속(風俗)이 있었다.

메가릿트물은 적의 사망(死亡)과도 관계(關係)가 있다. 특별(特別)한 경우인 몇가지 예(例)만 들어보면 앓삼지방(地方)의 고라그나가족(族), 후로레스도의 느가다족(族), 휘지도에서는 적의 머리를 선들에 걸어 놓는다. F.Sarasin은 뉴카에도니아도에 45개(個), 다른 곳에서 142개(個)의 돌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적(敵)의 수(數)를 표시(表示)한다고 한다. 울혼 지방(地方) 터키적에 8세기(世紀)에 속(屬)하는 어느 전사(戰士)의 무덤이 있는데 이곳에 많은 선들 혹은 선들 모양이 서 있는바 이는 그가 죽인 적(敵)의 수(數)를 표시(表示)한 것이다. 중앙(中央)아시아 서부(西部) 터키족(族)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것이 IbnFadlan에 의하여 보고(報告)되었으니 이곳에서는 돌이 아니라 나무로 세운다고 한다. 앓삼지방(地方)의 나가족(族), 쿠킨친족(族)에도 한 전사(戰士)의 무덤에 그가 죽인 적(敵)의 머리수(數)를 일정(一定)한 표시물(表示物)로 나타낸다고 한다.

아프리카에도 같은 것이 있으니 아메시니아 남부(南部)에 메가릿트문화(文化)의 대표적(代表的) 민족(民族)인 콘소족(族)은 전사(戰士)의 무덤에 많은 선들을 세우되 전사(戰士)를 표시(表示)하는 제일 큰 것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작은 것이 둘러 싸여 있으며 이는 그가 죽인 적(敵)의 수(數)를 표시(表示)한다. 꼭 같은 것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작은 것이 둘러 싸여 있으며 이는 그가 죽인 적(敵)의 수(數)를 표시(表示)한다. 꼭 같은 것을 목제(木製)로 만들기도 한다. 같은 양식으로 이번에는 창을 세우니 이것은 그 전사(戰士)가 생전(生前)에 노획한 창(槍)의 수(數)이다. 한편 방패를 세우는 경우도 있다. 아메시니아의 솟도지방(地方)에 선사유적(先史遺蹟)인 선들에 단도(短刀)를 조각(彫刻)한 것이 있다. 어떤 것은 30개(個)의 단도(短刀)를 두 줄로 새겼다. 구라끼지방(地方)의 선들에는 사람을 조각(彫刻)하고 그 옆에 창, 단도(短刀)등을 조각(彫刻)하였다. 이런 것이 콘소족(族)에서 본바와 같이 전사(戰士)의 무덤이며 무기(武器)의 조각(彫刻)은 그가 생전(生前)에 노획한 무기(武器), 즉 그가 죽인 적(敵)의 수(數)를 표시(表示)하는 것이 분명(分明)하다. 아메시니아의 이런 메가릿트와 신기하게도 일치하는 오래된 돌이 앓삼

지방(地方)의 나가베르겐족(族)에 있다. 이곳의 돌에는 15개(個)의 창끝이 표시(表示)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돌은 나가 지방(地方)에만 있는 것이다.

메가릿트기념물(記念物)에 무기(武器)를 새겨 놓은 것이 전에는 앗삼지방(地方)에 보다 널리 분포(分布)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이유(理由)는 카차리의 파괴된 수도(首都) 디마플과 야무구리에서 나온 석제기념물(石製記念物)이 이와 같은 것이며 이들은 십육세기(十六世紀) 이전(以前)의 것 들이다. 콘소족(族)의 전사(戰士)의 무덤에 그가 죽인 적(敵)의 수(數)를 표시(表示)하고 그가 노획한 무기수를 표시(表示)하는 목제모형(木製模型) 또는 목제창(木製槍)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 유럽에도 있었으니 Aristoteles의 이베리아에 관(關)한 기록(記錄)에서 볼 수 있다. 이곳 전사(戰士)의 무덤에는 그가 죽인 적(敵)의 창을 세워둔다. 그리고 아메시니아와 같이 무기(武器)를 조각(彫刻)한 선돌이 있으니 이베리아형은 상부(上部)에는 전사(戰士)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하부(下部)에는 두줄로 16개(個)의 창을 조각(彫刻)하였다. 이에 우리는 유럽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의 메가릿트기념물(記念物)에서 보는 무기조각(武器彫刻)의 의미(意味), 예(例)컨데 납티를 알군트 지방(地方)의 선돌에 조각(彫刻)된 단도(短刀)의 의미(意味)를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전사(戰士)가 무기(武器)의 수(數)만큼 꼭 적병(敵兵)을 죽였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例)컨데 터기의 황채자 Kùl Tegin이 8세기(世紀)에 적병(賊兵)을 죽인 표시(表示)로 수백(數百)의 돌을 그의 기념물(記念物) 옆에 놓았는데 이는 반드시 그가 죽인 것이 아니라 그가 인솔한 부대(部隊)가 행(行)한 전승(戰勝)의 표시(表示)이리라.

× × ×

유럽, 지중해(地中海), 아프리카를 포함(包含)하는 메가릿트문화(文化) 서반부(西半部)가 동반부(東半部)와 공통(共通)하는 것과 현존(現存)하는 메가릿트 문화(文化)가 선사시대(先史時代)의 것과 같은 의미(意味)를 갖는다는 것을 보았다. 물론 지역적(地域的) 특색(特色)들도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은 무기 표시의 예와 같이 그 기념물(記念物)이 한 가지 의미(意味)만 갖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意味)를 갖는 것도 있다. 예(例)컨데 칼낙의 선돌과 같이 사자(死者)의 기념물(記念物)이기도 하고 생전(生前)에 축전시(祝典時) 세우기도 한다.

대부분(大部分)의 돌레돌에는 무덤이 없고 집회소(集會所), 재판소(裁判所), 의례소(儀禮所)의 기능(機能)을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곳에서 보아온 바이며 더구나 유럽의 민속문화(民俗文化)에서는 현재(現在)까지 생생하게 간직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무덤이 있을 수도 있고 무덤을 가진 돌레돌도 집회소(集會所), 의례소(儀禮所)의 기능(機能)을 제일(第一)로 한다. 현재 메가릿트문화(文化)에는 메가릿트성소(聖所)와 무덤이 같이 있는 것도 많다. 이런 것보다 중요(重要)한 것은 무덤고인돌과 기념고인돌을 분별(分別)하는 것이며 이에 관(關)하여 고고학자(考古學者)들의 연구(研究)가 기대되는 바이다.

개개(個個)의 기념물(記念物)이 갖는 의미(意味)보다 중요(重要)한 것은 유럽이나 지중해(地中海)의 선사적(先史的) 메가릿트문화(文化)가 가진 정신세계(精神世界)와 세계관(世界觀)을 간파(看破)하는 일이다. 이에 나는 메가릿트적 세계관(世界觀)을 간단히 요약(要約)하여 보겠다.

ㄱ) 고대(古代) 고문화(古文化)에 널리 분포(分布)된 세계관(世界觀)의 하나, 즉 인간(人間)의 운명(運命)이 천공(天空)과 성좌(星座)의 운행(運行)과 직결(直結)된다고 믿어 인간(人間)은 세계관(世界觀)(Weltgebaude)에 순응(順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것은

메가릿트적 세계관(世界觀)이다. 이러한 세계(世界)에 인간(人間)이 세대 계층(階層)에 따라 질서 지워진다. 그러기에 모든 축제(祝祭)를 기회로 조상(祖上)과 관련(關聯)짓고 또 의례적(儀禮的) 반복을 통하여 생존자(生存者)는 조상(祖上)의 연쇄(連鎖)에 밀착도(密着度)를 더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새로 생긴 마을의 우물에 옛 우물의 물을 가져다 붓고 또 새로운 메가릿트성소(聖所)의 한 돌은 옛 것에서 가져온다. 이러한 풍습(風習)은 과거(過去)와의 연계성(連繫性)을 뜻하는 것으로 이에 부족(部族), 부락(部落) 또는 도시건립자(都市建立者)의 무덤 또는 기념물(記念物)이 갖는 의미(意味)가 큰 것이다. 이러한 사유계(思惟界)에 메가릿트기념물(記念物)이 속한다. 이는 생존자(生存者)와 조상(祖上)의 유대(紐帶)이고 또 생존자(生存者)와 후계자(後繼者)의 연쇄(連鎖)이기도 하다. 메가릿트성소(聖所)의 돌을 상속(相續)하는 가족(家族)은 세대(世代)를 거듭하며 일정(一定)한 권리(權利)를 갖는다. 메가릿트기념물(記念物)을 대관석(戴冠石)으로 사용(使用)함으로써 통치자(統治者)는 자기(自己)보다 앞서 간 모든 제후(諸侯)와 연결(戀結)을 갖는다.

ㄴ) 이러한 영원(永遠)과 영생(永生)이라는 세계관(世界觀)의 범주(範疇)에 인간(人間)의 영혼(靈魂)은 원래(元來) 영원(永遠)치 못하다는 생각이 있다. 즉 인간(人間)의 영혼(靈魂)은 저승길에 악마같은 염라대왕(閻羅大王)에게 죽음을 당하며 죽고 또 죽어 마지막에는 무(無)로 된다. 축전(祝典)과 장례(葬禮)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념물(記念物)의 건립(建立)으로 이러한 위험(危險)의 극복(克服)하고 영혼(靈魂)의 영생(永生)을 확신하려 한다. 즉 이는 일종의 속죄의례이다. 따라서 축전(祝典)에 결정적인 역할(役割)을 하는 소의 제물(祭物)보다 중요(重要)한 것은 죽은 이의 산 이의 그들의 영혼(靈魂)을 돌과 연결(連結)시키는 일이다. 특히 부자(富者)인 사람이 생전(生前)에 메가릿트기념물(記念物)을 세우는 것은 이런 의미(意味)에서이다. 수세대(數世代)를 지나 조상숭배(祖上崇拜)가 후손(後孫)에게 이미 무의미(無意味)하게 되었을 때라도 그의 이름은 기념물(記念物)과 더불어 존재(存在)한다. 따라서 이름의 존재(存在)와 영혼(靈魂)의 영생(永生)과는 깊은 관계(關係)가 있다. 무덤 앞에 놓인 돌은 시체(屍體)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靈魂)을 보호한다.

ㄷ) 생전(生前)에 자신(自身)을 위한 것이건 사후(死後) 후손(後孫)이 세운 것이건 기념물(記念物)에 영혼(靈魂)이 찾아와 앉고 쉬는곳, 그리하여 속세(俗世) 일에 참여(參與)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망령(亡靈)이 앉는 곳은 산 사람이 앉는곳, 쉬는 곳으로 이용(利用)된다. 이와 같이 메가릿트적 집회소(集會所)는 죽은 이와 관련(關聯)을 가져 메가릿트무덤은 회의장소(會議場所)로 이용된다. 이런 장소(場所)에서는 조상(祖上)이 산 사람들의 회의(會議)나 축제(祝祭)에 참가(參加)한다는 생각이 결들여 있다. 이런 생자(生子)와 조상(祖上)의 관련성(關聯性)은 망령(亡靈)에 대한 공포심(恐怖心)으로 차차 쇠퇴(衰退)하였다. 그러나 생자(生者)와 조상(祖上)은 부족(部族) 또는 씨족(氏族)을 형성(形成)한다. 따라서 카시족(族)에서와 같이 메가릿트적 씨족공묘(氏族公墓), 문다족(族)의 씨족공동묘지(氏族共同墓地)는 생존(生存)한 씨족원(氏族員)의 집회소(集會所)로서의 중요(重要)한 역할(役割)을 한다. 죽은 이와 연결은 많은 풍속(風俗)에 보이니 의례적 “죽은 이와 의 회식(會食)(음복(飲福))”은 동남(東南)아시아와 마다가스칼의 메가릿트문화(文化)에 많이 있는 것이고 유럽에도 없지 않다. 년중행사(年中行事)인 제축(祭獻) 때 모든 죽은 영혼(靈魂)이 후손(後孫)을 찾아와 축하(祝賀)를 받는다. 기독교(基督教)의 제성참례(諸聖參禮)(Allerseefest)는 이런 메가릿트적 세계관(世界觀)의 반영(反影)이리

라.

☆ ☆ ☆

확실(確實)한 것은 모르나 아마 메가릿트덴툼의 발생지(發生地)는 지중해지방(地中海地方)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날 연구(研究) 결과(結果)로는 파레스티나나 요르단에서 가장 오래된 메가릿트무덤이 발견(發見)되었고 이는 사천년전(四千年前)의 것이다.

전에 흔히 말하는 메가릿트의 전파(傳播)가 주로 해로(海路)로 대륙(大陸)의 해안(海岸)을 따라 갔으리라는 것은 전적(全的)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다. 동남(東南)아세아의 메가릿트덴툼은 중앙(中央)아세아와 중국(中國)을 경유(經由)하였으리라 본다. 인도에도 동(東)과 서(西)에서 여러 차례 전파(傳播)의 파장(波狀)이 있었으며 이는 모두 육로(陸路)로 왔다.

메가릿트덴툼은 민족이동(民族移動)에 따라 부족(部族)들의 모방(模倣)으로 혹은 원시적(原始的)인 선교사(宣教師)라 할까 어떤 개인(個人)에 의하여 전달(傳達)될 수도 있었다. 메가릿트문화를 가진 민족(民族), 특히 역사시대(歷史時代)에 그들이 지난날의 인물(人物)과 사건(事件)을 기념(記念)하기 위하여 기념물(記念物)을 세운 경우 이들이 그 기념물(記念物)과 관련(關聯)된 것을 상당히 오래 보존(保存)하고 있는 일이 많이 보고(報告)된다. 예(例)컨데 포리네시아의 마레스에는 건립(建立)과 의례(儀禮)가 수백년간(數百年間) 잘 지켜져 왔다. 기념물(記念物)의 형태(形態)와 메가릿트적 의례(儀禮)의 역사(歷史)를 잘 연구(研究)한 것의 하나는 J. Layard의 뉴헤부리드에 관한 보고(報告)이다. 이곳에 기념물(記念物)과 더불어 건립자(建立者)의 이름이 수삼년간(數三年間) 잘 보존(保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보고(報告)에는 뉴헤부리드의 복잡(複雜)한 메가릿트의 역사(歷史)를 잘 분석(分析)하였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大部分)의 메가릿트문화에서는 이러한 구전(口傳)이 주의(注意)깊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어려운 문제(問題)는 메가릿트 분포(分布)에 공백(空白)이 많고 또 대부분(大部分)의 경우 관찰(觀察)이 철저하지 못하다. 메가릿트기념물(記念物)이 있으나 그것을 무심(無心)히 지나쳐 버려 보고 안 된 것이 많다는 사실(事實)은 아마 믿지 않을 것이다. 한편 기념물(記念物)이 없어진 것도 많고 이 돌들이 새 건물(建物)에 사용(使用)되는 일 또는 어떤 이유(理由)로 집어 치우는 일도 많다. 불란서에서 메가릿트가 19세기(世紀)보다 오늘날 얼마나 소수(小數)밖에 남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런 예(例)이다. 개별적(個別的)인 메가릿트기념물(記念物) 또는 전체적(全體的) 메가릿트덴툼을 위하여서도 분포상(分布上)의 공백(空白)이 빨리 채워져야 한다. 더구나 메가릿트에는 여러 가지 설명(說明)이 가능(可能)한 여지(餘地)를 준다. 예(例)컨데 스칸디나비아의 메가릿트성소(聖所)와 인도네시아 동부(東部) 바레인도, 타인바 도의 그것은 모두 주형(舟形)을 하고 있으나 이들 사이에 직접적(直接的) 전파(傳播)의 가능성(可能性)은 없고 다만 같은 메가릿트적 정신(精神)에서 독립발생적(獨立發生的)으로 생긴 것이다. 이에 반하여 유럽, 아메니시아에서 본 무기(武器)의 조각(彫刻)은 한 곳에서 발생(發生)하여 전파(傳播)된 것이며 이는 아마 원래(元來) 나무로 만든 것이 후에 각기 석제기념물(石製記念物)에 조각(彫刻)하는 것으로 발전(發展)한 것이리라 본다. 선사시대(先史時代) 메가릿트 분포(分布)의 공백(空白)을 메가릿트덴툼의 특색(特色)의 하나인 목(木), 석(石)의 대가(代價)로 보충할 수 밖에 없다.

메가릿트덴툼의 힘찬 전파(傳播)의 원동력(原動力)을 파악(把握)하기는 어렵지 않다. 영혼(靈魂)의 영생(永生), 이름의 보존(保存), 생존자(生存者)와 죽은 이의 연결(連結), 조

상영혼(祖上靈魂)과 다산(多産), 풍년(豊年)의 관련(關聯) 등을 위한 의례(儀禮)와 기념품(紀念品)은 강한 팽창력(膨脹力)을 가졌다. 한편 축전(祝典)과 기념물(記念物) 건립(建立)으로 사회적(社會的) 특전(特典)을 얻고 상위계급(上位階級)으로 승진(昇進)한다는 생각은 틀림없이 메가리트텐트를 널리 분포(分布)시킨 힘이였다.

지난날 많은 시도(試圖)가 있었던 메가리트 문제(問題)를 피상적(皮相的)으로 보거나 단순한 가설로 쉽게 다룰것이 아니다. 전체적(全體的)인 문제(問題)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 하나를 면밀히 연구(研究)하여야 한다. 이상(以上)으로 우리는 고고학적(考古學的)으로 포착할 수 있는 큰 종교(宗教)의 움직임(움직임)을 보았다. 이 종교적(宗教的) 움직임이란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고문화(高文化)에 영향(影響)을 주었고 또 그 여파는 오늘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데서 중요(重要)한 의의(意義)가 있다.

거석기념물(巨石記念物)

(1) 거대(巨大)한 돌로서 구축(構築)한 각종(各種)의 건조물(建造物)을 말한다. 특(特)히 서구(西歐)에서는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부터 청동(靑銅), 철기시대(鐵器時代)에 걸쳐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네 가지로 분류(分類)할 수 있다.

(가) 멘힐(입석(立石)) 자연석(自然石) 또는 일부가공(一部加工)한 주상(柱狀)의 일본석(日本石)을 세운 것 일반적으로 높이1~5m의 것이 많지만 불다-뉴에는 20m에 가까운 것도 있다.

(나) 아리뉴만(열석(列石)) 주상석(柱狀石)을 수열(數列) 열(列)지어세운 것. 불다-뉴 지방의 갈랏구에 대표적(代表的)인 것이 있고 삼군(三群)으로 분리(分離)해서 동서(東西) 3km에 걸쳐 이어져 있다.

(다) 구로무렛구(환상열석(環狀列石)) 주상석(柱狀石)이 환상(環狀)에 줄지어 있는 것 대표적(代表的)인 예(例)는 영국(英國)의 스톤·헨지, 에이봐리-, 프랑스 에 루·라닛구 등이 있다. 에이봐리-의것은 경(徑)90m 중에 두 개의 환상열석(環狀列石)이 있고 각기(各其) 중앙(中央)에는 하나는 돌멘 하나를 멘힐이 서있다.

(라) 돌멘 (지석묘(支石墓)) 거대(巨大)한 평석(平石)을 수개(數個)의 돌로 바쳐 놓은 것 프랑스에 있는 것은 전방(前方)에 이도(羨道)가 있어 분명(分明)히 횡혈식(橫穴式石室)의 구조(構造)를 나타내고 있다.

(2) 이상과 같은 대표적(代表的) 거석기념물(巨石記念物)은 스페인, 프랑스, 북독일(北獨逸), 잉글랜드, 덴마크, 스칸다나비아의 대서양연안(大西洋沿岸)에 걸쳐 분포(分布)되어 있고 특(特)히 북(北)프랑스의 불다뉴지방(地方)에 풍부(豊富)하다. 그러나 이것들이 유사유적(類似遺跡)은 타지방(他地方)에도 존재(存在)하고 시나이, 아라비아, 페루샤, 인도, 시베리아, 북일본(北日本)에는 환상열석(環狀列石)의 존재(存在)가 알려져 있고 돌멘은 북(北)아메리카, 인도(印度), 중국동북(中國東北), 한국(韓國)에서, 일본(日本)의 북구주(北九州)에도 존재(存在)한다. 무명입석(無名立石)은 각지(各地)에 존재(存

在)하고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중국(中國)의 갈등(碣等) 도 여기에 속(屬)할 수 있다. 기외(其外) 남양제도(南洋諸島), 신대륙등(新大陸等) 에도 그 존재(存在)가 알려져 있고 이것이 일련(一連)의 문화(文化)로 보는 설(說)도 있다. 그것이 태양숭배(太陽崇拜)와 같은 종교적(宗教的)인 것인지 분묘(墳墓)의 일형식(一形式)으로 볼 것인지는 확실(確實)치 않다.